



미국 도서관협회 선정
2019 슈나يدر 패밀리 북어워드 명예상 수상작

알록달록한 풍선으로 이해하는 치매 이야기

기억의 풍선

제시 올리베로스 글 다나 울프카테 그림



함께 나누는 순간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림책

우리의 삶엔 행복한 순간도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면 [기억의 풍선]의 어린 ‘나’처럼 행복했던 기억도 고통스러웠던 기억도 모두 꼭 쥐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돌리고 싶은 풍선마저도 놓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풍선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만든 소중한 기억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기억들을 잃는다는 것은 두렵고 슬픈 일이겠지요. 하지만 [기억의 풍선]은 우리가 풍선을 하나씩 잃어버리는 일이 생긴다 해도, 우리의 빛나는 순간들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다시 기억 될 수 있다고 말해 줍니다. 그 기억들은 때로는 몇 세대를 걸쳐 생명력을 이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줄거리 이해하기

● 은색 풍선은 누구의 풍선인가요? 그리고 안에는 어떤 추억이 담겨 있나요?

● 주인공 ‘나’는 왜 길가에 주저앉아 울어 버렸나요?

● 슬퍼하는 나에게 부모님은 어떤 말씀을 해 주셨나요?



나의 풍선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아요 - 다음 페이지에 이어지는 세 개의

풍선 그림 중 마음에 드는 풍선을 골라서 그림과 글로 표현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종이 위에 직접 풍선을 그리고 색칠을 해도 좋습니다.

가장 기쁘거나 가장 행복한 기억이 담긴 풍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가장 슬픈 기억이 담긴 풍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같이 경험한 일에 대한 풍선을 가진 친구가 있다면 서로 어떻게 기억하는지 비교해 보세요.



소중한 기억을 함께 나누어요

교실이나 모임 장소의 게시판에 함께 기억하고 싶은 풍선을 붙여 보세요.

나의 풍선을 선물하고 싶은 친구나 선생님 또는 누군가가 있다면 선물해 보세요. 괜찮아요. 머리 위를 보세요. 풍선은 선물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